

벤틀리 타고 출근하는 식당 종업원

중국의 한 식당 종업원이 수십만 불을 호가하는 고급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되고 있다.

6일 중국 차이나타임즈 등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중년의 여성 종업원이 고급 자동차 벤틀리를 타고 출근하는 장면이 지난 1일 포착돼 중국 웨이보에 퍼졌다.

당시 해당 여성은 고무장화와 앞치마를 두른 차림으로 검은색 벤틀리 조수석에서 내렸다. 이 여성의 내린 곳은 명품 백화점이 아닌 바로 자신이 일하는 식당 앞이었다.



▲ 고급 자동차 벤틀리에서 내리는 여성(왼쪽 사진).
식당에서 반찬을 나르고 있는 여성, 사진=Weibo

여성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 여성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돈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며 “집이 너무 지루해서 하루라도 설거지를 안 하면 기분이 나쁘다. 일을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새로운 삶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식당에서 설거지, 청소, 서빙 등의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옛 연인 결혼에 ‘폭탄 심은 홈시어터’ 선물 … 새신랑 ‘폭사’

인도에서 결혼 선물로 받은 홈시어터를 작동하던 새신랑이 폭발로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홈시어터는 아내의 전 연인이 앙심을 품고 폭탄을 설치해 선물한 것이었다.

지난 3일 인도 차티스가르주 카비르담 지역에 사는 33세 남성 사르주 마르캄은 폭발물 설치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마르캄의 전 연인과 결혼한 새신랑 헤멘드라 메라위(25)는 집으로 배달된 홈시어터를 플러그에 꽂고 스위치를 켰다가 참변을 당했다. 폭발물의 위력은 상당해 순식간에 집 지붕이 날아가고 벽면이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메라위뿐 아니라 그의 형도 함께 사망했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다른 5명이 크게 다쳤다.

마르캄은 경찰 조사에서 전 연인에게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복수심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유부남인 마르캄은 여성과 사귀던 중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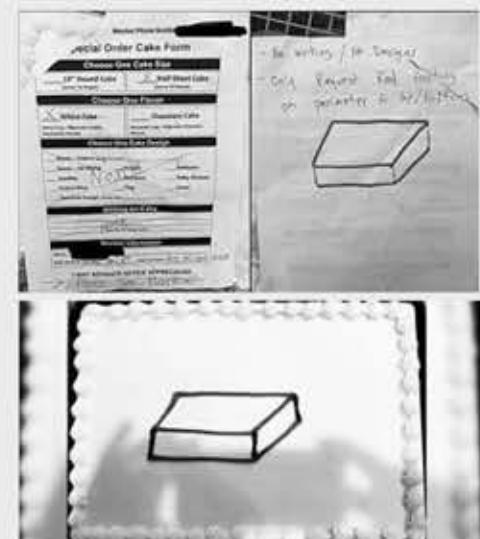


▲ 홈시어터가 폭발하면서 지붕과 벽이 무너져내린 모습. 폭발물을 설치한 홈시어터를 보낸 사르주 마르캄(작은 사진). 사진=indianexpress.com

번째 부인이 돼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전기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던 마르캄은 과거 쇄석장에서 근무할 때 훔친 폭발물을 홈시어터에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문자 울린 '황당' 맞춤 케이크



▲ 케이크 디자인 주문서(위 사진)와 그가 받은 케이크, 사진=redddit(amungus45)

맞춤 수제 케이크를 주문했다가 황당한 케이크를 받았다는 미국 네이버의 사연이 화제다.

뉴욕포스트는 최근 유명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이용자 A 씨가 올린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생일을 기념해 코스트코 매장에서 맞춤 케이크를 주문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케이크 디자인을 직접 주문서에 그리면서 ‘글씨 없음, 디자인 없음, 오직 케이크 상하단 테두리에 빨갛게 장식해주세요’라고 설명했다. 혹시나 제빵사가 그의 악필을 못 알아볼까 봐 그는 주문서의 ‘케이크 디자인’ 부분에 ‘없음’과 엑스(X)자로 표시했고, 뒷면을 봐달라는 글씨를 형광펜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A 씨가 받은 케이크의 모습은 당혹스러웠다. 케이크 중앙에는 주문서에 그렸던 그림만 똑같이 그려져 있었다. A 씨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명확하게 보여줬는데도 엉뚱한 케이크가 왔다.”고 말했다.

이 사연은 많은 네이버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 네이버 “그나마 다행인 건 제빵사가 뒷면도 읽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이버는 “솔직히 말해서 네가 그린 스케치랑 디자인너가 그린 스케치랑 똑같아서 감동받았다.”며 놀렸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 유경숙 치과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목 9am - 6pm